

■ 멕시코 전통의 도시, 과달라하라와 과나후아토

— 멕시코 여행(1)

김 수 정

“이영민 교수님과 함께 멕시코 갈 사람을 모집합니다.”

한창 기말고사를 앞두고 과제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2008년 11월, 우리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뽀뽀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타 지역에 대한 호기심은 지리를 공부하는 이영민 교수님과 우리 9명 모두를 연결시켜 주었다. 교수님께서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모두가 국제교류처의 승인이 나기만을 몇 주간 손꼽아 기다렸다.

멕시코는 우리에게 분주하고 바쁘기 만한 한국의 생활에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게 한 곳 스스로에게 도전의식을 던져 주는 곳이었으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느낄 수 있게 한 곳이었다. 스페인어를 몰라도 남들이 위험하다고 많은 걱정의 눈길을 보냈어도, 가 봐야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멕시코를 향한 열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한 없이 넘쳐나고 있었다. 출발 전부터 모두가 의지를 불태우며 함께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 마침내 12월 28일, 2008년의 끝자락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멕시코 전통의 도시, 과달라하라

새벽 6시 20분. 과달라하라 공항에 도착했다. 택시 표를 끊고 차에 올라 숙소로 향하는데 작고 까만 수십 마리 이름 모를 새들이 나무 위에서 지저귀며 우리를 반겼다. 멕시코에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지인 과달라하라는 멕시코의 제2의 도시로서 해발고도 1,563m에 자리 잡은 도시다. 호텔로 향하는 길 곳곳에 상당한 수준의 그래피티를 볼 수 있었다. 과달라하라는 벽화운동이 일어났던 곳으로서 그만큼 벽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공항에서 차로 1시간 쯤 달려 과달라하라 시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높은 지대에 조밀하게 들어선 건물이 미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경관을 펼쳐 보였다. 드디어 멕시코에 온 것을 실감했다.

여기가 멕시코 맞아?

이른 아침에 호텔에 도착했던 터라 방에 들어갈 순 없었다. 급히 짐만 맡겨 두고 아침 먹을 곳도 찾을 겸 소칼로(Zócalo, 중앙광장) 주변을 걸었다. 호텔 바로 옆 자유 광장(Plaza de la Liberación) 한 쪽에는 멕시코 독립운동의 아버지 이달고의 동상이 서 있었다. 이달고 신부는 메스티소, 흑인과 함께 멕시코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다가 처형당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독립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처형 후 그의 목을 잘라 새장에 넣어 밖에 걸어 두었다고 한다. 우리는 과달라하라에서 멕시코 도시의 전형적인 공간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하여 성당이 세워져 있고 성당 앞에는 광장이 펼쳐지게 된다. 그리고 사각형의 광장 주변으로 관공서와 기타 여러 건물들



이달고 동상

이 에워싸게 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대성당과 데고야도 극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데고야도 극장은 그리스 신전을 떠올리게 하는 여덟 개의 코린트식 석주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건물이다. 우리가 갔을 때는 마침 보수공사 중이라 주변에 철근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소칼로를 둘러보면서 멕시코가 아니라 마치 스페인의 어느 도시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건물이 모두 스페인 식민지배 때 지어진 것이라 양식

과 느낌이 스페인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성당이나 관공서 외에 일반 주거지도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확연히 드러나 있었다. 건물들 사이에서 이슬람 풍의 건물을 더러 찾아내곤 했다.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 오랜 지배를 받아 정복자 중에서 이슬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멕시코에서도 유사한 양식으로 집을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이슬람의 세력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었다.

소칼로에서 참으로 독특한 구두닦이 한 사람을 목격했다. 특이하게도 손님을 의자에 앉힌 채 구두를 닦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생소한 모습에 신기하기만 했다.

데고야도 극장 뒤편으로 타파티아 광장(Plaza Tapatia)을 따라 약 500미터의 곧게 뻗은 길에는 상점과 레스토랑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스페인 사람처럼 멕시코 사람도 분수를 좋아하는 것 같다. 길 중간 중간에 사진 찍기에 안성맞춤인 분수대가 보였



과달라하라 소칼로 광장

다. 저녁식사를 타파티아 광장 부근에서 해야겠단 생각을 하면서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카바냐스 문화원은 그 규모가 엄청났다. 라틴아메리카의 식민 시대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 한때 고아원으로 쓰기도 했던 이곳에서는 천장에 그려진 섬뜩한 오로스코의 벽화도 볼 수 있었고, 여러 작가들의 전시품도 볼 수 있었다. 문화원 건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슬람적인 파티오와 오벨리스크가 많이 보였다.

조용했던 문화원을 빠져나와 과달라하라에서 빼먹을 수 없는 마리아치를 찾아 광장을 헤매고 다녔다.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르베라타스 시장을 돌아가자 드디어 마리아치 광장! 창이 넓은 모자인 솜브레로와 전통의상 차우를 걸친 멕시코의 대표적인 음악 마리아치는 메스티소 문화를 투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올린, 하프 등과 같은 유럽적인 요소와 기타를 변용한 비우엘라, 기타론과 같은 식민지적 유물, 그리고 트럼펫으로 대변되는 타 문화의 적극적 유입이 마리아치를 통해 하나의 줄기로 형성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마리아치는 기본적인 악단의 형태를 일컫거나 음악장르로 분류된다. 또한, 멕시코의 민속음악 전반에 걸친 상징적 의미도 함께 포용하고 있다. 마리아치는 이곳 과달라하라에서 널리 연주되었으며 결혼식이나 마을의 다양한 행사를 빛내는 공동체 문화 속의 향토색 짙은 음악으로 출발했다. 마리아치가 멕시코 민중의 대표적인 음악으로 각광받게 된 것은 19세기 초반 스페인과의 독립전쟁때부터였다. 복합적인 인종과 문화가 난립하던 멕시코 국민에게 마리아치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였으며 이러한 동질성은 독립전쟁의 승리를 견인한 원동력이 되었다. 마리아치의 연주에는 고단한 일상에서도 낭만적인 삶을 향유하고자 했던 멕시코 민중의 낙천적인 성격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광장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광장 곳곳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리아치들을 볼 수 있었다. 멋지게 차려입은 마리아치들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 곁에서 열심히 곡을 연주하고 노래를 하거나 자기네끼리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마리아치는 주로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곡을 신청하는 사람 앞에서 모든 열정을 다하여 노래하는 이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문화를 즐길 줄 아는 그들

저녁식사를 마치고 다시 소칼로로 나왔다. 할리스코 주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다고 해서 자리를 잡았다. 겨울이지만 우리나라

의 가을처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다. 시원한 바람을 쐬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여유롭게 앉아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한 독특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클래식공연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관람객의 구두를 닦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것질거리를 들고 다니며 파는 상인이 보였다. 또 관객 어느 누구도 이들을 불쾌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중상류층이나 즐길 수 있는 음악회이지만 멕시코 사람은 광장에서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와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독특했다. 누구 하나 결코 쉽게 공연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 음악을 듣는 자세가 사뭇 진지했으며 곡이 끝날 때마다 큰 박수와 함께 아멘을 외치기도 했다. 구두 닦는 사람, 물건 파는 사람에 대해 전혀 따가운 시선 하나 없이 말이다. 이렇게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공 영역(Public Space)이 있다는 게 부러웠다.

음악회를 관람하다가 우리도 군것질거리에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다. 한 꼬마가 사과에 설탕을 입힌 사탕을 팔고 있기에 사서 먹었다. 현지에서 처음으로 스페인어로 가격을 물어보고 사먹은 간식이어서인지 더 맛있게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음 날 저녁, 광장에서는 새로운 무대를 준비되고 있었다. 2008년의 마지막 날을 맞아 락 페스티벌과 함께 불꽃 축제가 열렸다. 불과 하루 사이에 클래식과 락을 오가며 즐길 수 있다니! 이는 과연 멕시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장르가 락이라고 하여 젊은 층만이 있는 게 아니라 먼발치에서나마 어른과 아이가 함께 손을 흔들며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우리도 이곳에서 멕시코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 거꾸로 숫자 세는 연습까지 미리미리 해 보면서 사람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며 2008년 한 해를 마무리 지었다

테킬라의 본고장을 찾아서

아침 9시, 소칼로에서 가이드와 함께 테킬라 투어에 나섰다. 버스로 한 시간 가량을 달려 사우사(Sauza)라는 글씨가 입구부터 보였던 테킬라 마을에 도착했다. 알고 보니 유명한 제조사 중의 한 곳이 사우디아(Saudia)였다.



아가베를 수확하는 농부



테킬라 농장에서 농부들과 함께

멕시코의 술 하면 당연히 테킬라다. 현재 100여 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그 생산지는 테킬라 마을이다. 원료가 되는 아가베(용설란)밭이 마을을 둘러싸여 있으며 마을 안에는 여덟 개의 테킬라 공장이 있다. 테킬라 제조의 첫 단계는 8~10년 된 아가베 잎의 밑동 부분을 찌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공장 투어의 일환으로 호세 쿠에르보(José Cuervo) 공장을 방문했다. 머리에 하얀 망을 쓰고 들어가서 테킬라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잎을 제거한 아가베는 24시간 동안 증기로 찌고 난 후 압력을 가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된다.

처음 나오는 증류는 먹으면 바로 죽는다고 했다. 테킬라는 숙성 기간에 따라 색이 변하게 되는데, 오래 지날수록 그 맛이 부드러워진다. 테킬라를 제조한 후 남은 아가베는 버리지 않고 요



테킬라 공장 내부

리나 가구 등을 만드는 데 재활용된다. 공장 한 쪽에 아가베로 만든 책상과 여러 가구가 놓여 있었다.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는 아가베다. 보관소 옆의 한쪽 벽면에 테킬라의 제조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공장을 나와 테킬라 마을을 잠깐 걸었다. 오래된 건물로 이루어진 마을이었지만 테킬라 생산을 통한 부의 축적으로 건물 내부가 모두 깔끔했다. 소칼로에는 역시나 성당이 있었고 방사형으로 길이 뻗어 나가 마을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다. 성당 안에는 특이하게도 흑인 신부상이 있었다. 과달라하라와 달리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마을을 상징하는 테킬라 병 모양의 관광버스도 볼 수 있었고, 거리마다 투어를 제안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다.

멕시코에서의 첫날과 둘째 날을 과달라하라에서 보냈는데,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첫날을 이곳에서 보냈다. 광장에서 가족과 연인과 더불어서 음악회를 즐기는 이들의 여유 있는 삶이 부러웠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또한 부러웠다. 식민지 전통의 도시구조를 이곳 과달라하라에서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시차 때문에 피곤하여 잠이 들고 연말연초를 맞아 더 많은 곳들을 둘러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으나, 앞날을 기약하며 다음 행선지 과나후아토로 향했다.

아름다움과 평화의 도시 과나후아토



과나후아토의 길

과달라하라에서 좀 더 올라가 해발고도 2,017m에 위치한 과나후아토에 도착했다. 멕시코 도시 가운데 가장 중세에 가까운 분위기를 갖고 있는 곳이다. 1554년 스페인이 건설한 식민 도시로 1558년 대규모 은 광맥이 발견되어 이후 18세기까지 약 250년 동안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이 이곳에서 생산되었다고 한다. 은광은 도시에 부를 가져다주었고, 이러한 부의 흔적이 과나후아토의 건물과 시민들의 생활수준에 반영되었다. 식민지 시대 만들어진 유럽풍의

광장과 거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과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이 그러한 모습을 입증한다. 1988년 유네스코 세계 유물 현장으로 지정되기도 한 이 도시는 오늘날 신호등 네온사인이 없는 곳이 되었다.

과나후아토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진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미술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가 태어나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운 도시이자 멕시코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리아치인 불멸의 가수 호세 알프레도 히메네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또한 멕시코 독립운동의 아버지 이달고 신부가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처형당한 곳으로 ‘멕시코의 정신’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곳이기도 하다.

과달라하라에서 아침 고속버스를 타고 여섯 시간을 달려 오후 2시 30분 과나후아토 터미널에 도착했다. 파란 하늘과 약간은 따갑게 느껴지는 햇볕을 받으며 숙소로 향하는데 작고 좁은 길과 수많은 터널과 지하도가 인상에 깊게 남았다. 시내로 가까이 갈수록 아스팔트로 포장되지 않은 돌을 깔아 만든 길이 늘어났고 건물도 아름다운 파스텔 톤으로 점차 바뀌어 갔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지역을 설명해 주던 안내문 그대로 중세의 한 마을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다. 숙소에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과나후아토의 답사를 시작했다.

화려한 도시의 흔적

거리를 걷다가 가장 먼저 만난 산디에고 성당. 파스 대광장을 끼고 정면에 서 있는 산디에고 성당은 화려했던 당시의 시간을 말해 주듯 웅장하고도 화려했다. 도시의 전체 분위기와 맞물려

화려한 빛깔로 치장한 산디에고 성당은 과나후아토의 푸르른 하늘과 아름답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산디에고 성당의 파사드는 화려한 장식을 특징으로 하는 추리게라 양식(Churrigueresco)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서 좀 더 걸어가다 보면 중앙광장의 산타마리아데과나후아토 성당과 만난다. 1696년 세워진 이 성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당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다. 노란 빛깔을 띠는 거대한 성당이 신기하기만 했다. 화려하고 뾰족한 첨탑과 붉은 돔의 모습이 주변 건물을 순식간에 압도했다. 은 생산으로 부를 축적한 도시의 화려함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해 주는 건물이다.

과나후아토 마을의 공간구조 배치는 중세 유럽의 성곽도시와 스페인의 그라나다의 공간구조 배치가 혼합되어 있는 모습이다. 중세 성곽도시는 장원 제도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과나후아토는 광산도시로 그 형태만 가져오기만 했을 뿐이고 스페인풍의 특징이 마을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한 예로 이탈리아의 건물은 웅장하지만 어두컴컴한 단조로운 색상인데 반해,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건물은 웅장할 뿐만 아니라 빛깔 또한 굉장히 다채롭다. 또한 이탈리아 건물에는 베란다가 없으나, 스페인 건물에는 베란다가 있으며 꽃장식이 있다. 이러한 점들이 과나후아토의 마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죽음은 삶과 연결되는 또 다른 세계

소칼로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미라 박물관이 나온다. 이 무시무시한 박물관은 죽음에 집착하는 멕시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인근 묘지에서 발굴한 200여 구가 넘는 미라가 박물관



미라 박물관의 어린아이 미라

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것들은 특별히 미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나후아토의 건조한 기후가 보통의 매장된 시체를 5~6년 사이에 미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어두컴컴한 실내에는 상당히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전시된 미라 중에는 옷을 입고 있거나, 살갗이 두꺼운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살아 있을 때 그들의 직업이나 신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몸이 뒤틀린 미라, 비명을 지르는 듯한 입을 하고 있는 미라

가 인상적이었다. 비명을 지르는 미라는 의사의 실수로 살아 있는 채 매장 당한 한 여인의 미라라고 한다. 또한 어린아이들의 미라도 많았는데 특히 엄마 뱃속에서 죽어 미라가 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미라도 전시되어 있다.

특히 이집트의 미라처럼 만들어진 미라가 아니라 건조한 기후 덕분에 만들어진 미라라서 그런지 미라의 살갗이 마른 종이나 나무처럼 느껴졌다. 살아생전 신고 다녔을 신발을 지니고 있는 미라, 그리고 아직까지도 머리카락이나 이가 남아 있는 미라도 있어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흥미로운 공간이다.

미라 박물관이 관광객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멕시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크다. 멕시코 사람들은 죽음을 삶과 격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미라를 전시하는 것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멕시코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의 흔적을 쫓아

둘째 날 아침 우리는 디에고 리베라 박물관을 가장 먼저 찾았다. 이곳 과나후아토는 프리다 칼로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멕시코 3대 벽화 거장 디에고 리베라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로 그의 생가가 박물관으로 꾸며져 그의 초기 작품과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었다.

1921년 유학생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 토착 문화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며, 그 동안 정치적·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인디오 문화를 부각했다. 또한 폭발하는 생명력과 폭력, 관능적인 사랑을 발견했다. 그는 이를 ‘멕시코 르네상스’라 불렀다. 벽화운동을 주도한 〈화가·조각가 연맹〉의 선언문은 “우리의 기본적인 미학은 예술 표현에 있어 부르주아 성향에서 탈피하여 사회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귀족적인 그리고 이젤화와 같은 개인적인 예술을 버리고,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예술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일종의 사회주의



디에고 리베라 박물관 입구

운동과 그 맥락이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멕시코 혁명에서 싸워 이긴 농부와 노동자가 자신의 그림을 더 쉽게 이해하기를 원한 리베라는 미술의 ‘전문적인 언어’ 가 가지는 폐쇄성을 뿌리치고 ‘보통의 언어’, 즉 이야기가 담긴, 전달하기에 용이한 그림을 그리려 했다. 그에게 있어서 벽화란 한 개인의 천재적 능력이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모든 멕시코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박물관 건물은 모두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은 작가가 살았던 집의 구조를 복원해 놓았다. 2층에는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을 전시했다.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의 일대기를 읽을 수 있을 것만 같다. 초기에 유럽의 양식에 영향을 받아 초상화와 인물 중심의 대단히 사실적인 묘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눈을 뜨게 되고 원주민과 그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그림이 늘어났다. 그 이후에는 굉장히 성찰적인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 그림을 많이 그렸다. 원주민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많은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이 살았던 모습을 완벽하게 복원해 낸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화려한 도시 이면에는...

디에고 리베라 박물관에서 좀 더 내려와 택시를 타고 발렌시아 은광으로 향했다. 은광 입구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다. 겉보기와는 달리 교회 내부는 매우 사치스러울 정도로 금과 은으로 치장을 해 놓았다. 화려한 장식의 성당은 멕시코 식의 건축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내부의 제단은 모두 금으로 장식했으며 지

붕까지도 섬세한 인간의 손길이 느껴졌다. 스페인의 가톨릭교가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한 궁극적 목적은 신대륙을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서 전위적 역할을 맡는 데 있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교회도 정복자와 다름없는 역할을 했고 화려한 건물로 자신들의 권위를 표현하려고 했다.

교회에서 내려와 우리는 직접 광산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실제 광부들이 일했던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그 당시 광부들의 상황을 느껴볼 수 있다. 발렌시아 광산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광부는 정복자에 의해 끌려온 원주민 노예였다. 그들은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하루에 여덟 시간씩 어두컴컴한 광산에서 일해야 했다. 스페인 정복자는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가파른 계단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굴러 떨어져 죽는 노동자도 많았다고 한다. 이 광산에서는 금, 은, 니켈 등 다양한 광물이 채취되었고, 그로 인해 스페인의 정복자는 막대한 재산을 챙길 수 있었다. 광산 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광산 내부 깊숙한 곳에 서 있던 성모 마리아상이었다. 원주민이 컴컴하고 위험한 광산 안에서 믿고 의지할 곳을 찾아 스스로 신앙심을 키우기 위해 마리아상을 가져다 놓은 것일까. 아니면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마리아상을 보며 신앙을 가질 것을 강요한 스페인 지배자들이 가져다 놓은 것일까. 확실히 알기는 어려우나 그때 당시의 비참했던 원주민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해 주는 장소였다. 화려하기만 한 과나후아토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목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원주민의 피가 서려 있다는 생각에, 도시의 화려함이 웬지 서글퍼 보이기 시작했다.